

주택대출금리 최고 7.7%... 이자폭탄 세레

은행들 본격 인상... 주택구입 2억 대출자 매달 128만원 부담

국민·외환銀 생활자금 마련용 대출금리 0.05~0.06%P 인하

은행들이 이번 주부터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본격 인상할 예정이어서 각 은행들의 대출 최고금리가 7.5%선 돌파를 앞두고 있다. 양도성에증서(CD) 금리상승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의 출연료율 인상 등 영향으로 기준금리와 가산금리가 동반 상승하며 1년세 주택대출 금리가 1%포인트 급등한 경우도 있어 소득이 적은 서민들이 '이자폭탄'에 불안해 하고 있다. 서민가계에 주름살이 깊어지면서 대출금리 인상폭을 제한하거나 생활자금 마련용 주택대출에 대한 금리인하 등을 통해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기준금리·가산금리 모두 급등= 15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오전 20일부터 주택마련용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가산금리를 0.20%포인트 인상기로 했다. 이번 주초 5.94~7.44%인 우리은행의 주택대출 금리는 가산금리 인상과 지난 12일 콜금리 인상 이후 이틀간 CD금리 상승폭 0.07%포인트가 반영되는 주말에는 6.17~7.67% 수준으로 치솟게 된다. 만약 은행으로부터 특별한 우대혜택을 받지 못한 서민이 주택구입을 위해 2억원을 빌릴 경우 연간 이자가 1천534만원에 달해 매달 128만원 가량을 이자비용으로 내야 한다.

한국씨티은행은 이번 주부터 주택마련용 대출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5.99~7.49%로 적용기로 했다.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 0.15%포인트 인상분이 이번 주부터 반영되는 국민은행 역시 주택대출금리가 지난주 초보다 0.21%포인트 높은 5.92~7.52%로 적용기로 해 최고 금리가 7.5%를 넘어서게 됐다. 이달부터 가산금리를 0.3%포인트 인상한 신한은행과 외환은행의 주택대출금리 역시 각각 6.34~7.44%와 6.43~7.28%로 최고금리가 7.5%에 근접했다. ◇생활자금용 대출은 인하=은행들은 그러나 기존 주택담보대출이나

주신보 출연에 포함되지 않는 생활자금 마련용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는 인상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과 한국씨티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생활자금을 빌리면 주택구입용 대출보다 각각 0.3%포인트와 0.25%포인트 낮은 금리가 적용된다. 일부 은행은 고객부담을 줄이기 위해 생활자금 마련용 대출의 금리를 인하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모든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가산금리를 인상하는 대신 생활자금 마련용 대출에 대해서는 0.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기로 했다. 가산금리 인상폭 0.15%를 감안하더라도 대출금리가 종전보다 0.05%포인트 낮아졌다. 외환은행은 평균 조달비용 감소를 반영해 이달부터 주택대출 기준금리를 0.06%포인트 인하해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구입용 대출에 대

한 금리인상폭은 0.24%포인트로 줄었고 가산금리가 오르지 않은 생활자금 마련용 대출이나 기존 주택대출자의 경우 0.06%포인트 만큼 금리인하 효과를 보고 있다. 그러나 주택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CD금리가 콜금리 인상 이후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 기존 주택대출자들이 생활자금마련용 대출자들 역시 이자 부담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유동성 억제에 연내 콜금리를 추가 인상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CD금리 등 시장금리도 상승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추가적인 금리 우대혜택 제공이나 대출금리 상한선 지정 등을 통해 가계의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협뉴스

주택대출금리 1%P오르면? 가계 이자부담 年 2조 6천억

주택담보대출의 90% 이상이 변동금리대출인 상황에서 주택대출금리가 1%포인트 상승하면 가계의 이자부담이 연간 2조6천억 원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15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주택금융의 현황과 발전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4월말 현재 은행의 주택대출 가운데 변동금리 대출이 93.8%에 달해 금리상승 국면에서는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다. 우리나라 주택대출의 변동금리 비중은 미국의 31%, 독일의 16%, 프랑스 32% 등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5월말 현재 민간주택대출 잔액은 279조2천2억 원으로 금리가 1%포인트 상승하면 가계의 이자부담이 연간 2조6천억 원 증가하며 차주당 연간

64만원의 이자부담이 늘어났다고 이 보고서는 설명했다. 특히 최근 콜금리 인상과 은행의 양도성에증서(CD) 및 은행채 발행 확대에 따른 금리상승으로 가계의 이자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대출 증가로 금융부채가 소득이나 금융자산보다 더 빠르게 늘어남에 따라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이 약화되고 있는데,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금융부채의 비율은 2001년 96.3%에서 2006년 142.3%로 확대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 금융부채의 비율은 2001년 56.6%에서 2006년 79.1%로 높아졌는데 이는 영국(104%), 미국(96%)보다 낮지만 독일(70%), 프랑스(57%)보다 높은 것이다. /연협뉴스

“본인 미확인 계좌 범죄약용 은행 책임없다”

대법원 판결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개설된 계좌가 범죄에 사용됐더라도 은행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면 은행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성명을 알 수 없는 한 남자는 2001년 10월18일 오전 박모씨가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휴대전화와 함께 A은행에 계좌를 개설했다. 은행 직원이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 남자는 일주일 뒤 박씨 휴대전화로 텔레뱅킹을 이용해 미리 알고 있던 김모씨의 B금융기관 계좌번호와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한 뒤 2천500만원을 박씨 명의의 A은행으로 송금해 현금으로 인출했다.

김씨는 은행이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박씨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주는 바람에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은 은행의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김씨가 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은행의 책임을 70%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 명의의 계좌는 성명 불상자가 불법으로 인출한 금액을 일시 입금, 보관하는데 이용된 것에 불과할 뿐, 박씨 명의의 계좌의 존재로 인해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대한 접근이나 인출이 가능하게 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연협뉴스



기아차에서도 '아이팟' 쓴다

트로닉스'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기아차는 14~16일 서울 잠실 롯데월드 어드벤처에서 AUX & USB 입력단자가 적용된 로제 어드밴스와 2008년형 카니발을 전시하고 아이팟을 연결해 시연했다. 기아차는 최첨단 IT 신기술을 우선 도입하는 '기아 트로닉스'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기아차 광주공장 제공)

“유류세 내리면 낭비” 주장 엉터리

기름소비 대부분 산업용... 車 연료는 10% 불과

정부가 유류세 인하 불가 주장과 함께 에너지가 낭비되고 있다며 내세운 논리들이 오히려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돼 정부의 '유류세 인하 거부 논리'가 논란이 되고 있다. 15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권부총리는 지난 13일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한국표준협회 공개 강연에서 “지난 2년간 국내 유류 소비가 감소하지 않는 상황에서 중대형 차량 구입이 소형 차량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는 점을 문제점의 하나로 내세웠다. 2005년 국내에서 판매된 승용차가 운대 배기량 2천cc 이상 승용차의 비중은 28.0%였고 지난해에는 29.8%로 높아져 이 점은 부총리의 말이 맞다. 하지만 이는 에너지 소비는 대형차 판매보다 기술발전과 주행거리 등 유류 소비행태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무시한 주장에 불과하다. 에너지관리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판매된 승용차들의 평

균 연비는 2003년 9.931km/ℓ였지만 2004년에는 10.5km/ℓ, 2005년에는 세운 논리들이 오히려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돼 정부의 '유류세 인하 거부 논리'가 논란이 되고 있다. 15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권부총리는 지난 13일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한국표준협회 공개 강연에서 “지난 2년간 국내 유류 소비가 감소하지 않는 상황에서 중대형 차량 구입이 소형 차량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는 점을 문제점의 하나로 내세웠다. 2005년 국내에서 판매된 승용차가 운대 배기량 2천cc 이상 승용차의 비중은 28.0%였고 지난해에는 29.8%로 높아져 이 점은 부총리의 말이 맞다. 하지만 이는 에너지 소비는 대형차 판매보다 기술발전과 주행거리 등 유류 소비행태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무시한 주장에 불과하다. 에너지관리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판매된 승용차들의 평

경기 회복국면... 서민엔 '판세상'

기름값 고공행진·생활물가 올라 체감경기 '흐림' 정부는 “유류세 인하 불가” 등 세금 거들 공리만

정부가 내수 회복과 수출 호조를 근거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올렸으나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더구나 정부는 유류세를 낮춰 기름값 부담을 덜어달라는 요구에 귀를 틀어막고 '유류세 인하 불가' 원칙만 되풀이하는 반면, '개미'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는 증시의 주문 수수료를 통해 거둘 수 있는 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 15일 재정경제부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재경부는 지난 11일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을 발표하면서 내수 부문 발전적 개선을 위해 유류세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소비자지

대지수는 101.5로 3개월 전의 97.8과 비교하면 꽤 높아졌다. 그러나 소비자지대지수는 6개월 뒤의 경기와 생활형편, 소비지출에 대한 전망으로, 최근 지수가 높아진 것은 실생활과 밀접한 생활형편, 소비지출 부문이 개선됐기보다는 경기 전망이 좋아졌기 때문이다. 경기대지수는 3월 89.4에서 6월 98.2로 큰 폭 상승했지만 같은 기간 생활형편은 99.7에서 101.2로, 소비지출은 104.4에서 105.0으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체감경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생활물가도 상황이 썩 좋지 않다. 3월 2.5%에서 ▲4월 2.9% ▲5월 3.1% ▲6월 3.2% 등으로 계속 올라가는 추세다. 그럼에도 정부는 유류세 논란에서

도 대다수 국민과 큰 시각차를 드러내며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기름값이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는 와중에 지난달 초 정부가 유류세를 조정해 경유 소비자가격을 1ℓ 당 35원 올린다고 발표하자 생계목적으로 경유차를 굴리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성토 여론이 들끓고 있다. 더구나 정부가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에서 증권선물거래소(KRX)가 부과하는 수수료를 현행 거래 금액 중심에서 건수 중심으로 개편하고 주문건담 일정을 준수하는 방식도 검토한다고 밝히면서 성난 개인투자자들의 비난하고 있다. 투자액이 적어 투자기간을 짧게 잡고 주식을 자주 사고파는 개인투자자 입장에서 체감되고 있는 것이다. 이영준 대주건설 대표는 “앞으로 수수료를 내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연협뉴스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당첨자 수
0211624722835	21	
등위	당첨금(원)	
1	6개 숫자 일치	2,552,016,300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 일치	50,039,536
3	5개 숫자 일치	1,759,405
4	4개 숫자 일치	63,267
5	3개 숫자 일치	5,000

등위	당첨금(원)	당첨번호
1	10억	1조 817774
2	5억	1조 817773
3	1천만	1등과 조가 다른 번호
4	1백만	각조 53714
5	1만	각조 516
6	2천	각조 32
7	1천	각조 34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및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아울렛코리아	경리 및 관리업무 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20	062-611-8156
시티건설(주)	프레스 생산직 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20	062-951-8677
㈜보고정보	공공기관 전략기획(기술영역 포함) 사원	초대졸/경력무관	2200~2400	07/20	061-722-9035
TV뮤직&댄스	유아교육기관 교육프로그램 영업팀장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20	080-288-2030
디자인내비	디자인이나 및 간판제작 시공 사원	고졸/경력무관	1200~1400	07/20	062-511-9988
뉴바이오(주)	무역담당 인력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20	062-973-6996
남양정보기술(주)	남양건설 지회사 남양정보기술 전문 IT 경력자	초대졸/경력1년	회사내규	07/20	062-525-1431
협신상사	백화점 LG가전 제품 판매 및 매장관리 사원	고졸/경력무관	1800~2000	07/27	062-350-6789
현인오양병원	간호사/간호조무사	초대졸/경력무관	1800~2000	07/27	062-720-1150
LG전자무지개대리점	배송 및 판매 직원	고졸/경력무관	1400~1600	07/27	062-225-4080
㈜기성	납품/배송/출하관리 사원	고졸/경력무관	1200~1400	07/27	062-942-2636
삼진MPS(주)	여수 직업전문학교 전기.CAD.디자인 교사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31	02-558-3385
㈜한국쓰리속	생산/지제/설계 사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31	062-943-5460

*광주점코리아 512-6210 제공

대주건설 주택건설 총괄대표에 이승구씨

조선사업·평택건설 총괄대표에 이영준씨

대주그룹 인사 단행



대주그룹(회장 허재호)은 15일 이승구(59) 전 현대산업개발 건축본부장을 대주건설 주택건설부문 총괄대표에 선임하는 등 오는 18일자 인사를 단행했다. 이영준 전 대주건설 대표는 조선사업부문·평택건설부문 총괄대표로 자리를 옮길 예정이다. 이승구 대표는 한양대 건축공학과 연세대 공학대학원, KAIST 테크노

경영대학원을 나왔으며 현대건설을 거쳐 현대산업개발에서 잔뼈가 굵은 건설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대주건설 이영준(왼쪽 여섯번째) 대표는 14일 담양을 빛고을 공동체에 '사랑의 쌀' 50포대를 전달했다. /최경호기자 choi@kwangju.co.kr

대주그룹 환경정화·사랑나눔 실천

대주그룹(회장 허재호) 소속 대주건설·대한케이퍼텍·담양다이너스티CC 임직원 250여명은 지난 14일 담양군 병풍산 인근에서 대대적인 환경정화 운동과 함께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이들은 이날 '대주가족 사랑나눔 한마음대회'를 갖고 병풍산 등산로와 계곡에 널린 오물을 수거한 뒤 담양관내 장애인 복지시설인 빛고을 공동체를 비롯해 나사로의 집, 화인케어, 기쁨원 등에 '사랑의 쌀' 20kg들이 50포대를 전달했다. 대주건설은 지난해부터 광주시에 소재한 여자고아원인 성빈여사와 자매결연을 맺어 지속적

으로 지원해오고 있다. 또 올 6월에는 건설업체 최초로 장애인선수단을 발족, 장애인 채용과 함께 재활사업을 돕고 있다. 이밖에 대주건설은 산하 대주문화재단을 통해 매년 불우청소년 등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으며, 유진음악문화재단과 함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음악 공연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영준 대주건설 대표는 “앞으로 사업규모를 대폭 확충, 불우이웃과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심어 줄 수 있는 기회를 더욱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시장역전 란체스터’ 특별 세미나

19일 광주 피렌체 호텔

란체스터 마케팅연구원(원장 김태영)은 오는 1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광주 상무지구 피렌체호텔에서 ‘시장역전 란체스터 특별세미나’를 개최한다. 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 원장이 강사로 나서 ‘변혁의 지식혁명이 대’ ‘경쟁과학의 원리와 란체스터 법칙’ ‘2007 판매전략 실전포인트’ ‘과학적 세일즈맨 전략과 판매혁신’ 등에 대해 강연한다. 참가문의는 011-706-9922.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